

# 轉換期 맞는 세계 石油製品市場

**앞**으로 수년간에 걸쳐 정밀·현대화된 精油工場들이 생산해 내는 석유제품들이 中東을 비롯한 세계 여러곳으로부터 쏟아져 나올 전망이어서 이미 공급과잉에 짓눌리고 있는 세계 제품시장이 이러한 추세에 어떻게 대처하게 될 지 주목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석유제품시장의 수급여건과 향후전망이 현재와는 전혀 달랐던 시기에 관련 계획들이 이루어짐으로써 초래된 현상이다.

앞으로 세계 석유제품시장에 쏟아져 나올 물량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이러한 상황이 주요소비국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 OPEC, 2년내 770만B/D 精製能力 보유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 알제리, 리비아, 인도네시아등 精製施設 확장을 서둘렀던 OPEC국가들은 1차 확장사업을 이미 마무리 지었다. 이들 OPEC국가들은 精油工場을 늘리는 것이야말로 국가경제의 先進化 여망을 달성하는 필연적 경로라고 판단, 국제석유제품 무역에서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을 오랜동안 염원해 왔다.

하와이 「東西文化센터」는 최근 발표한 바 있는 『변모해 가는 세계 精油産業의 구조』라는 제하의 조사보고서를 통해 OPEC 국가들이 앞으로 2년내에 하루 770만배럴의 精製能力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국내수요에 충족될 부분을 감안하면 87년에 가서 OPEC 전체의 석유완제품 수출능력은 250만-350만배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중 페르시아만 협력협의회(GCC) 국가들의 수출능력이 190만배럴로 큰 부분을 차지하며 경쟁중인 이란과 이라크까지 포함시킨 페르시아만 연안 OPEC 국가들의 수출능력은 하루 210만 배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석유제품의 수급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非OPEC권의 개발도상국들이 추진중인 하루 220만배럴의 증류시설도 빼놓을 수 없다. 단지 이중의 대다수가 中南美 地域에서 추진되고 있어 이 지역 국가들의 外債문제 등 재정난을 고려할 때 부분적인 설비지연이 불가피할 것이므로 80년대중 완공될 시설능력은 일부에 그칠 것이다. 非OPEC권에서의 증설계획이 어떻게 진척되건간에 OPEC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高度化설비 계획의 규모나 질적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 쿠웨이트·사우디 등은 超精密 플랜트 보유

OPEC 국가들중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 및 인도네시아 등 국가들이 현재 가동중이거나 설비 추진중인 精油工場들은 모두가 美國의 최신기술을 이용한 高度化 플랜트들이다. 대다수 크래킹 시설들이 水素分解 공정으로 예를 들어 휘발유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中間溜分の 생산량을 극대화한다든지 하는 수율의 조정이 가능하다.

사우디의 「안부」 「라비그」 「주베일」 소재의 3개 신규 輸出 專用 精油工場들은 모두가 오일그룹들과의 합작투자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출 전략 수립 및 수행에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精油工場들이 본격 가동되고 전면적인 수출정책이 추구될 경우 세계 석유제품 시장에 큰 판도변화가 예상된다. 물론 이들 공장이 최대로 가동된다고 해도 원유수출국으로서의 사우디의 위치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쿠웨이트의 경우에는 현재 추진중인 플랜트 건설이 매듭을 지을 경우 수출의 主役은 원유에서 제품으로 옮겨지게 된다. 인도네시아는 精製施設 확정 계획이 주로 내수용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제품의 수출은 단기적으로 끝날 전망이다.

西方측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油價침체 및 공

급과잉의 제품시장 여건 아래서 경제설비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것이 현명한 일인가에 대해 극도의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이미 투자한 비용부담은 젓혀 두고라도 가동비나마 전질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물론 이들 中東國家들은 염가의 에너지를 손쉽게 끌어낼 수 있다는 점과 자국산 원유를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은 있다. 천연가스의 경우 100만BTU(British Thermal Unit) 당 50센트의 생산비가 드는 정도이다. 이러한 잇점 때문에 이들 中東國家들은 고도화 정유공장 건설을 시도할 수 있었던 것이다.

### 소비시장까지의 높은 수송비 부담이 문제

그러나 이러한 이점은 지역 위치상의 불리함으로 상쇄되어 버린다. 페르시아만 지역으로부터의 수송비가 日本까지 배럴당 1.33달러, 그리고 西部유럽까지 2.62달러, 美國까지는 무려 3.12달러나 든다. 「東西文化센터」의 정밀계산에 따르면 사우디의 경우는 극히 일부 시장에서 이윤을 낼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시장에서는 손해를 보며 쿠웨이트는 배럴당 34달러(84년 9월 기준)라는 높은 생산 코스트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주요제품 시장에서 팬찮은 마진을 남길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런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수출국 정부들은 어떤 가격정책을 채택하게 될 것인가? 사우디는 정부 공시가격과 현물시장 가격을 두루 적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실제로는 이제까지 현물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해 왔으나 수락할만한 가격공식만 도출된다면 3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계약도 환영한다는 뜻도 내보이고 있다.

가장 확실한 판로와 가격공식을 지니고 있는 것은 쿠웨이트인 것 같다. 현물시세와 공시가격을 아울러 적용하고 있고 시장정세의 변동에도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 FOB와 CIF 가격을 경우에 따라 적용하며 소비시장까지 수송하는데 필요한 유조선 능력도 자체 보유하고 있다.

알제리와 아랍 에미레이트 연합(UAE)도 활발한 현물시장 진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가장 유망한 소비처는 日本 등 극동지역

어느 소비시장이 유망한가 하는 것은 수출국 입

장에서의 경제성은 물론 소비국의 수입정책과 회사간의 연계관계에도 달려 있다. 아시아, 그중에서도 특히 日本이 가장 유망한 소비시장으로 꼽히지만 이곳에 대한 수출은 상대국의 무역장벽으로 저해를 받을 공산이 크다. 「東西文化센터」도 쿠웨이트나 사우디의 「주베일」을 출발지점으로 할 때 가장 바람직스러운 공급대상 지역으로 극동을 꼽고 있다.

일부 수출국들은 유럽시장에 눈독을 들일 것이 확실하며 알제리가 벌써 선수를 치고 있다. 쿠웨이트는 유럽지역내에 이미 주유소를 갖고 있어 이를 통해 제품을 팔 것인데 쿠웨이트가 수출할 無鉛휘발유가 거의 전량 이곳에서 흡수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美國의 경우 거리가 멀다는 불리점과 문호가 개방되어 있다는 유리함이 어떻게 작용될지 미지수이며 이곳 시장은 다른 국가의 수입정책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단지 「안부」精油工場の 합작투자 기업인 「모빌」의 美國내 판로가 무연휘발유 생산량의 절반이상을 비롯한 「안부」 생산제품을 다량 흡수할 것이다. 따라서 「모빌」은 美國이 수입하는 무연 휘발유중 10%를 점유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美國의 관련산업의 위해를 받을 염려는 없으며 단지 베네수엘라나 카리브연안 국가들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의 물량에 대체되는 정도일 것이다.

### 원유차등이 확대, 산유국간 불화 조장할 수도

中東 산유국들의 제품수출 확대에 따라 여러가지 부작용이 생길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소비국의 정제업자들에게도 한두가지 제품의 공급부족 때문에 불필요하게 많은 원유를 들여와 정제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줄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원유시장의 수급상 안정을 기할 수도 있다. 또 한가지 제품무역의 확대가 정제업자들의 선호도에 융통성을 줌으로써 원유 차등가격을 확대시켜 보다 합리적인 원유가격 설정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OPEC 국가들 사이에서는 수출용 精油工場을 보유하고 있는 산유국들이 부당 이득을 가진 자로 취급됨으로써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간의 긴장과 불화를 조장하게 될 가능성도 크다. \*

(Petroleum Economist)